**5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이정인 20 여성 010-9229-0012 해당사항 없음  
  
**2. 학교**서강대학교 경영학부 1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삼성 라이온즈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서강대학교에 재학중인 이정인입니다 :) 초등학생 때부터 야구 좋아했고 스포츠 마케팅에 뜻이 있어서 경영학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mbti는 ESTJ라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정말 좋아해요!! 취미는 당연히 야구 관람입니다..! 삼성라이온즈 팬인데 제일 좋아했던 선수가 박해민 선수라 요즘 조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ㅠ ㅠ  
  
**5. 지원 동기**서울에서 같이 야구 보러 다닐 동료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삼때도 야구장 20번 넘게 갔었는데 제가 지방 사람이다보니 라이온즈 파크 외에는 잠실구장 한 두번 정도밖에 안 가봤거든요!! 그리고 다른 팀 응원하시는 분들과 친해지면서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를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가 야구를 보는 시각은 삼성라이온즈에 치우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취미가 같은 좋은 분들 만나서 야구에 대한 시각도 넓히고 꿈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저는 중학생 때부터 박해민 선수 좋아하는 여자애로 유명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야구를 좋아하는 여학생이 되게 드물었는데 야구팬들 사이에서도 아구장 정말 많이가고 야구 정말 자저 챙겨보는 학생으로 유명했거든요..! 야구를 매일 챙겨조던 초등학생 때, 세 자리 수 등번호와 이름 철자가 혜가 아닌 "해"인 것이 신기해서 처음으로 박해민 선수를 응원하게 되었고 그렇게 10년째 좋아하고 있네요 ㅠㅠ,,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에 lg트윈스로 이적하시는 바람에 삼성라이온즈에서는 박승규 선수와 김지찬 선수를 제일 응원하게 되었어요!! 자소서 마감 후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야구장이고 수능 8일전에 가을야구 직관가고.. 3일전에 삼성라이온즈 카카오맴버쉽 팬싸인회 보고 싸인모자 받고.. ㅎㅎ 정말 인생이 야구로 가득찼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박해민 선수, 김지찬 선수 관련 모든 이벤트에 웬만하면 다 당첨이 되었는데, 이정도면 제 팬심..⭐️ 알아봐주시겠죠..?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그냥 무탈하게 야구 직관 재밌게 다니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

**11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문명 21 남성 010-7118-3752 미필  
  
**2. 학교**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재학  
  
**3. 응원하는 팀**KIA 타이거즈  
  
**4. 간단한 자기소개**강남구 거주중이며, 처음 한두번은 말수가 적을 수 있지만 친해지면 누구보다도 재밌게 즐깁니다. 매시즌 야구경기와 매일 전 경기 결과들, 하이라이트 시청할정도로 야구를 10년째 좋아하고 있습니다.  
  
**5. 지원 동기**고3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야구경기를 챙겨볼 정도로 야구를 좋아하지만, 주변에는 야구를 좋아하는 인원이 많이 없어 직관 갈 기회도 매우 적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직관도 즐기고, 야구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2010년 아버지와 sk와 삼성 한국시리즈 2차전 경기를 직관한 것을 시작으로 야구에 처음 접하여 삼성을 응원하다, 2014년부터 기아타이거즈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유니폼과 같은 것들은 많지 않지만, 야구 자체를 좋아하기때문에 싸인볼도 수집중이며, 전반적으로 모든 경기를 관심있게 봅니다. 김호령선수를 좋아하는데, 전반적으로 약했던 기아 수비에서 매번 미칠듯한 수비를 보여주는 모습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복귀한 양현종선수와 새로 오게된 나성범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며 새 시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서울에 거주하다보니 거의 모든경기를 잠실에서 직관했는데, 잠실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직관해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기아 홈구장에서 가을야구를 직관해보고싶네요 ㅎㅎ..

**12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정은서 23 여성 010-2565-9228 해당사항 없음  
  
**2. 학교**세종대학교 바이오융합공학과 2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삼성 라이온즈  
  
**4. 간단한 자기소개**현재 목동에 살고 있고, 친화력이 좋은 성격입니다! 음악 듣고 영화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야구도 좋아해서 잘 챙겨봅니다!  
  
**5. 지원 동기**야구를 좋아하지만 주변에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없어 같이 보러 갈 친구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함께 삼성을 응원하는 친구를 찾고 싶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야구를 챙겨보게 된 것은 2020 시즌 부터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기를 시간이 날 때는 라이브로,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하이라이트까지 모두 챙겨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백정현 선수, 원태인 선수, 구자욱 선수입니다! 작년 시즌 백정현 선수의 활약을 주의 깊게 봤었고, 원태인 선수의 10승 이상 달성을 누구보다 기쁘게 응원했습니다! 올해 삼성 구장을 떠나게 된 작년 캡틴 박해민 선수도 응원합니다~ 작년 가을 야구를 오랜만에 진출하게 되어 이틀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삼성두산전을 직관하러 갔었습니다! 그 때의 경기장의 열기에 매료되어 더 삼성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삼성 팬들과 같이 삼성을 응원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카톡방이 있었으면 좋겠으며, 가끔 번개모임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라이온즈 파크도 가보고 싶습니다!

**13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최지인 23 여성 010-2019-7971 해당사항 없음  
  
**2. 학교**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롯데 자이언츠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 재학 중인 최지인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으며 2학기에도 서울에 있을 예정입니다! 부산 출신이라 자연스럽게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은 처음에는 조금 낯을 가리기도 하지만 친해지면 매우 활발해지는 편입니다ㅎㅎ 평소 취미는 야구 관련 영상 보기와 노래부르기입니다!  
  
**5. 지원 동기**야구장 직관 가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항상 같이 보러 가는 친구는 부산 친구라 이번에 서울에 다시 오게 되면서 같이 보러 갈 친구가 없어졌습니다ㅠㅠ 서울 친구 중에서는 야구를 그렇게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친구가 거의 없어서 항상 일회성으로 야구장에 데리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Line-up 동아리에 들어가서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과 야구 얘기도 하고 여러 구장을 돌아다니며 재밌는 추억을 쌓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학년이긴 하지만 사실 아직 취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시간이 막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ㅎㅎ 예쁘게 봐주세요^^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저는 애기 때 사직구장 바로 앞에 살아서 여러 번 야구를 보러 다녔지만 제 의지로 간 게 아니라 그때는 거의 기억이 없고 제가 스스로 야구를 좋아한 건 2020년도부터였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롯데의 전성기는 이대호, 강민호, 가르시아가 있었던 때라고 생각해서 '지금 선수들이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하며 야구에 관심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마차도 마차도하길래 도대체 마차도가 누구길래 저렇게 찬양을 하냐며 약간 삐딱한 마음으로 티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차도 선수가 수비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빠져버렸습니다ㅎㅎ... 비록 지금은 미국에 갔지만....^.^ 하지만 지금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박세웅 선수입니다! 박세웅 선수는 작년부터 좋아하기 시작했고 운이 좋게 레전드 경기였던 21년 6월 4일 kt전 완봉경기를 직관하기도 했습니다ㅎㅎ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박세웅 선수지만 롯데 선수들 다 좋아합니다! 롯데 다음으로는 kt위즈를 좋아하고 강백호 선수를 좋아합니다ㅎㅎ  
 직관을 가 본 곳은 사직구장, 수원kt위즈파크, 창원nc파크, 삼성라이온즈파크, 고척스카이돔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잠실야구장, 랜더스필드, 챔피어스필드, 이글스파크도 너무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잘 부탁드립니다!!

**14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유지우 24 여성 010-5675-5198 해당사항 없음  
  
**2. 학교**이화여대/컴퓨터공학/3학년  
  
**3. 응원하는 팀**두산 베어스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세요, 저는 건대입구이 사는 20학번 유지우 입니다! 제취미는 야구 직관이구요 작년부터 좋아하기 시작해서 일주일에 최소 2번씩 갈만큼 애정이 남다릅니다 사람들이랑 어울리는걸 좋아해서 시간 돼면 번개 모임 모두 나가고 싶어요! 저는 만화카페 가는것도 좋아하고, 한강에서 다같이 돗자리 깔고 노는것도 좋아해요ㅎㅎ  
술은 잘 못마시지만 분위기를 좋아해서 술자리도 참여 가능입니다  
꼭 야구직관이 아니더라도 같이 즐기고 싶어요!  
  
**5. 지원 동기**저는 야구도 같이 보면서 친구도 사귈 수 있는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었습니다. 라인업이 모이는 시간이 저랑 딱 맞고 이미 6기를 모집하는것으로 보아 충분히 방향성을 갖고 운영하는 동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인업에서 직관 같이 갈 친구도 구하고, 근처 사는 분들과 함께 야구 즐기고 싶어요! 제 주변에는 한국야구 팬이 많지 않아서 야구 얘기 할 곳이 없었는데 이 동아리는 야구를 사랑하고 야구에 대해 저보다 베테랑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 지원했습니다. 4학년 되기전 마지막 동아리로 꼭 활동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때문에 동아리를 한번도 안들어 봤는데 라인업은 그런 저도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였어요. 같은 두산 팬들이랑 직관가요!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저는 야구를 좋아한지는 얼마 안됐지만, 처음 사직구장에서 본 김재환 , 페르난데스 홈런에 꽂혀 야구를 좋아하기 사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홈런을 치고 점수를 낼수록 응원 분위기가 살아나고 다같이 한마음이 되는 모습이 재미있어 야구를 봤지만 지금은 야구 자체가 재미있는 개임이란걸 알게됐어요. 야구가 너무 재미있고 분위기가 좋아서 야구장 알바도 할 만큼 야구에 진심인 편입니다...야구장 일주일에 2-3번씩 출석 했었어요 유니폼은 아직 3개 밖에 없지만 응원도구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 포스트시즌 한국 시리즈 뺀 서울에서 한 모든 경기 직관 갈만큼 야구를 좋아합니다. 원래 박건우릉 좋아했지만 지금은 정수빈을 응원해요ㅎㅎ 두산이 올해 힘든건 알지만, 올해 꼭 포스트 시즌은 진출하길 바랍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None

**17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김태영 20 남성 010-9055-2819 미필  
  
**2. 학교**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한화 이글스  
  
**4. 간단한 자기소개**현재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살고 있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지만 친해지면 꽤나 재미있는 성격이라 생각합니다.  
야구 외에 다른 스포츠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 듣기라던지 여러 취미활동을 두루 즐기는 편입니다.  
  
**5. 지원 동기**주변에 야구를 깊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입시 등으로 야구 보러 간 지도 꽤 되어서 야구도 보러 가고, 또 사람도 만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원래는 배영수, 이용규 선수를 좋아했는데 생각해보면 다들 저희 팀과의 끝이 좋지가 않았네요. 선수들 다 좋아하는 편이지만 굳이 꼽아보자면 김민우, 하주석 선수 유니폼도 가지고 있고 좋아합니다.   
야구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면.. 지명권 선수들의 고교야구 경기도 팔로우하면서 챙겨볼 정도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깊었습니다. 현재 각광받고 있는 세이버매트릭스 같은 2차 스탯이나 스탯캐스트와 같은 기술에도 관심이 많아서 학교 탐구대회에서 그와 관련한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19년부턴 응원팀의 성적이 다시 떨어지고 고등학교 생활도 하다 보니 야구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18년도에는 응원팀이 오랜만에 가을야구 진출도 했고, 거의 매 경기를 풀타임으로 챙겨봤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일단 야구 보러 다니고 싶고, 요즘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만나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건의사항은 아직 활동을 안 해본 상태에서 건의한다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직관 외에도 다양한 활동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2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이민형 21 남성 010-2889-9354 미필  
  
**2. 학교**동국대학교 법학과 1학년  
  
**3. 응원하는 팀**삼성 라이온즈  
  
**4. 간단한 자기소개**경산 출신이고 야구 보는 것을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라팍에서 30분 거리에 삽니다.  
  
**5. 지원 동기**고등학교가 충남소재 기숙사학교라 직관을 많이 못 다닌게 아쉬웠고 작년에 재수해서 삼성이 암흑기 벗어나고 정규 1위하냐마냐할 때 직관은 커녕 경기 하이라이트도 못 본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대학을 서울 소재에 왔으니 학기 중에는 원정 경기 직관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야구 관람 동아리가 있어 지원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저는 삼성팬입니다. 왕조시절을 보며 자랐고 암흑기 또한 견뎌냈습니다. 왕조 시절의 간판 스타들, 암흑기의 프랜차이즈 등 많은 좋은 선수들이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직관 다니며 가장 뿌듯했던 경기는 오승환 선수의 복귀식이 있던 경기입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기 위해 충남의 학교에서 어찌저찌 핑계를 대며 대구로 내려왔고 그때 받은 삼성 기록들이 새겨진 야구공을 아직도 집에 고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삼성라이온즈는 대구에 지역연고를 두고 있는 팀입니다. 유니폼이나 라팍에는 모기업인 삼성 로고가 가장 크게 있지만 잘 살펴보면 대구은행에서도 지원를 합니다. 이게 저에게는 아주 큰 호재입니다. 선수들 대부분이 대구에서 살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려면 대구은행을 가게됩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께서(지금은 어머니만) 대구은행에서 근무하십니다. 덕분에 대구은행을 방문한 선수들의 싸인이 몇 장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받아주신 양준혁 선수의 싸인, 20년도에 수능 응원을 해준 구자욱 선수의 싸인(20년도에 저는 고2였습니다;;)이 있습니다. 또, 라팍에서 티켓팅을 할 때 대구은행의 카드가 있다면 약간의 할인, 적립이 가능합니다.   
  
집이 경산이고 영남대까지 걸어서 20분 거리인데 어렸을 때는 영남대 야구장에 많이 놀러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사회인 야구단 소속이셨고 삼성 김헌곤 선수의 대학 선배셔서 제가 한 번 뵌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어릴 적 이야기라 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직관하러 가는 동아리니까 직관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아서... 사실 제가 금 공강 만든 게 3연전 보기 위해서인데 삼성 경기 있을 때 한 번 보고 싶습니다.

**24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정우석 20 남성 010-9887-0427 미필  
  
**2. 학교**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1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LG 트윈스  
  
**4. 간단한 자기소개**거주지역은 경기도 화성시이고, 성격은 엠비티아이 enfp로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과 금방 친해지는 편입니다.  
평소취미는 축구, 축구보기, 야구경기보기, 노래부르기, 친구들과 술자리 가지기 등등 활동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 지원 동기**제가 Line-up에 지원하게된 동기는 첫째로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때 직관에 자주갔던 친구들과 이젠 자주갈수없는것이 현실이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야구에 대한 열정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많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볼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합동아리이기에 다른학교의 사람들을 만날 수있고 다양한 전공의 사람과 대화해볼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평소 야구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엘리트야구도 잠시 경험했고 취미로 하는 야구부도 1년이상 참여하며 야구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엘지트윈스팬인 삼촌의 영향을 받아 초등학교때부터 엘지트윈스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3학년 재학중에는 학업과 코로나 문제로 직관을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중학교때와 고등학교 1학년때는 가족과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집에서 가까운 수원 케이티위즈파크, 잠실야구장 등에 직관을 최소한 한달에 한번 씩은 갔습니다. 목소라 높여 응원하기를 좋아해서 서서 응원하는 단상 앞자리에 앉아 응원가를 부르고 응원구호와 응원동작들을 모두 외워 응원에 참가할 만큼 프로야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선수는 오지환선수와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지환 선수는 엘지팬들에게는 애증의 관계로 최근시즌에는 유격수로 3할의 타율을 달성하기도한 엘지의 붙박이 유격수이기 때문이고 홍창기 선수는 이제 떠오르는 라드오프로 호쾌한 스윙과 5할에 육박하는 선수의 출루율은 저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동아리부원의 학교, 사는 지역, 성비, 전공 등이 균형이 맞아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대학 새내기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25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박병용 21 남성 010-7496-5435 미필  
  
**2. 학교**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2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삼성 라이온즈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청주 출신으로 현재 충북학사 동서울관에 거주하고 있는 박병용입니다. 성격은 말 많고 활발한 편이고, 조용히 들어야 할 땐 듣는 것도 잘하는 소통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범대학 학생입니다. 취미로는 당연히 야구 관람이 취미이고, 친구들과 가끔 게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5. 지원 동기**2021년 삼성 라이온즈가 99688의 비밀번호를 끊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학창 시절의 꿈이 삼성 라이온즈의 가을 야구 승리를 직관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작년 플레이오프 2차전 잠실 삼성과 두산의 경기를 직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없어 경기를 혼자 직관하러 갔습니다. 그 날 삼성 라이온즈가 대패하였는데, 춥기도 하였고, 심심했고, 처참하게 지고 있는 와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누군가 같이 있었다면 덜 슬펐을 것 같아 직관할 친구를 만들고 싶었고, 혼자 다니는 것보다 여럿이 다니는 것이 재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구 관람 동아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저는 2007년 6살 때 처음으로 삼성과 두산의 경기를 tv로 접하였습니다. 그때 리오스 선수를 상대로 심정수 선수가 홈런을 쳤고, 그 경기 결과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경기에서 캐스터의 샤우팅, 환호하는 팬들을 보며 연고도 관련도 없는 삼성 라이온즈 야구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삼성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1111, 원정도박 사건, 그 후 99688을 하던 시절까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고3이었던 2020년에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께 인터넷 강의를 듣겠다고 휴대폰을 받아와, 라디오 어플을 깔아 대구 tbc 중계를 들으며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 대전 한화 이글스는 3위를 하였고, 고향 친구들은 계속 한화로 넘어오라고 설득하기도 했고, 부모님 두 분 모두 전라도 사람이셔서, 친척들 앞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다가 큰 삼촌께 "전라도 사람들 앞에서 어딜 대구 팀을 응원하느냐"라고 혼을 나도 삼성 라이온즈를 계속 응원하였습니다. 게임을 할 때도 야구를 보면서 하여 집중하지 않아, 친구들의 질타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선수는 보통 좌완 선발투수는 그냥 멋있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장원삼 선수입니다. 좌완 선발투수에, 삼성 라이온즈가 한창 우승하던 시절에 빅게임 피쳐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승으로 이끈 선수였기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여기저기 미치고 다니는 정말 멋진 선수이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상무에 입대한 최채흥 선수를 좋아합니다. 백정현 선수는 원래 불펜이었기에 제 기억에는 그 이미지가 더 강해서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선수 반열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자 중에는 부끄러운 선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은퇴한 박한이 선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2013 한국 시리즈 니퍼트 상대로 쳤던 홈런을 잊을 수 없고, 누구보다 삼성 라이온즈를 사랑하며 헌신한 선수였기에 불명예 은퇴를 했어도 가장 좋아하는 선수였고 음주운전 전에는 영구 결번을 주장하는 파였습니다. 박한이 선수가 은퇴한 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받아든 휴대 전화,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는 박한이라는 이름. "전날 끝내기가 아직도 1위일만큼 삼성 팬들이 기분이 좋았나?"라는 의문과 함께 검색하자 나온 기사. 박한이 은퇴. 숙취 운전이라서 사람들의 동정 여론이 있었던 시점에, 여느 선수들처럼 음주운전하고 복귀하려는 모습이 아닌,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은퇴하는 모습, 베테랑이라면 보여줘야 할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아니었고, 그에 관해서는 두둔할 여지를 남겨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깔끔한 은퇴를 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며 원래는 최고로 많이 좋아하는 선수였고, 은퇴 이유 때문에 지금은 장원삼 선수과 비슷한 정도로 좋아합니다. 현재 타자 중에는 이번에 5년 계약을 하며 삼성 라이온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구자욱 선수가 가장 좋습니다. 순위를 매기자면 가장 좋아하는 건 장원삼, 박한이 선수, 그 다음은 최채흥, 구자욱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None

**26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김보빈 20 여성 010-9479-8295 해당사항 없음  
  
**2. 학교**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 전공 1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SSG 랜더스  
  
**4. 간단한 자기소개**인천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SSG랜더스의 전신 SK와이번스를 응원했고 현재는 SSG랜더스를 응원하고 있는 김보빈이라고 합니다! ‍♀️ 저는 조용하지만 할 때는 뭐든 선두에 앞장 나설 정도로 좋아하는 것에는 엄청 열정적인 성격입니다. 취미는 당연히 야구 보기입니다  
  
**5. 지원 동기**저는 야구 덕분에 중앙대에 왔다! 라고 할 정도로 2학년때는 야구에 빠져 학업에까지 소홀히 할 정도로 야구광이었습니다. 반에도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없고 '공놀이가 그렇게 재밌어?' 라며 야구를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 야구를 저 혼자 즐겨야 했습니다. 또한 학업 때문에 야구장에도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는 가지 못했었습니다. 마침내 대입을 끝나고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야구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였을 때 마침 Line-up이라는 야구관람 동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과 야구를 보고 이야기하며 친해질 수 있는 곳에서 행복한 경험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line-up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야구는 10살부터 대략 룰은 알고 있었고 제대로 야구라는 스포츠를 공부했던 것은 18살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노수광 선수의 열정적인 플레이 때문에 , 현재는 최정 선수를 팀에서 가장 응원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보이는 플레이에만 집중했다면 시간이 지난 요즘에는 era, wrc+, wpa, war도 확인하며 야구라는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의 야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시험 전날에도 풀 경기를 몰래 본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ㅎㅅㅎ (다행히 시험 성적을 망치지는 않아서 꾸중은 덜 먹었습니다..^^) 또한 2020년 SK와이번스가 9등을 하고 승률을 바닥을 쳤을 때도 탈주하지 않고 거의 144경기를 챙겨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야구를 좋아하는 열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야구 직관은 물론이고 놀이공원이나 방탈출 등의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도 함께 하며 친목을 쌓고 싶습니다!

**28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윤성준 24 남성 010-4063-4225 해당사항 없음  
  
**2. 학교**숭실대학교 3학년 휴학  
  
**3. 응원하는 팀**한화 이글스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세요! 윤성준입니다! 강남구에 살고 있고 취미는 농구와 맛집탐방입니다. 저는 아빠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초등학교때부터 한화를 응원했습니다. 2010년대 한화 아시나요? 야구도 못하고 리빌딩도 못하는 구단을 응원한다는 건 힘들지만 저는 그 힘든기간이 이번해를 기점으로 바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새로운 친구들과 같이 야구를 즐겁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화를 10년 넘게 응원할 정도로 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화를 응원하는 만큼 인내심도 많고 조그만 행복에도 크게 느낍니다! ㅎㅎ  
  
**5. 지원 동기**제가 휴학을 해서 공부랑 스포츠경기 시청을 주로 합니다. 주변에 한화팬들도 적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야구에 열정이 식어서 작년에 경기를 거의 혼자 본 것 같습니다 ㅠㅠ 이번에 라인업에 들어가 혼자 경기를 보지말고 여러 사람들과 즐겁게 떠들면서 야구를 보고 싶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저는 BORN TO BE 한화팬입니다. 응원을 시작한 팀이 한화에서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야구를 처음으로 한창 볼때가 한대화 감독님이 한화를 이끌 때였는데 그때 정말 팀이 힘들었지만 연패를 깼을때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선수는 류현진, 송창식, 정은원, 김태연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드래프트도 오랜만에 잘됐고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제가 100명이 넘어가는 중앙 동아리 총무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동아리 운영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뽑히게 된다면 능동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만약 저말고 한화팬들이 있고 여건이 된다면 한번 대전 내려가서 경기 보고 싶습니다 ㅎㅎ

**30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임재원 26 남성 010-8368-3027 미필  
  
**2. 학교**경희대학교 한의학과 3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KIA 타이거즈  
  
**4. 간단한 자기소개**본가는 서울 송파에 있고, 현재는 경희대학교 앞(회기동)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E-I의 중간? 정도의 외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야구에 있어서는 E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 KIA 타이거즈를 가장 좋아하고, 서울 팀 중에는 LG 트윈스를 좋아합니다.  
취미는 여행, 사진찍기, 그리고 맛집탐방입니다. 가고 싶은 곳은 많은데 친구들이 잘 안 가 줘서, 먹킷리스트만 늘고 있습니다 ㅠ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탐구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 수능 사회, 문화나 생활과 윤리를 응시했다면 제 책을 풀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5. 지원 동기**야구 보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학교에만 있다 보니 새로운 사람들을 볼 일이 많지 않아서, 새로운 사람들과 좋아하는 것을 해 보려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1) 2017년 한국시리즈 3, 5차전 직관하면서 KIA 타이거즈 우승 직관했습니다. 6차전 가면 수업 째고 광주 가려고 했는데, 아쉽게 우승해서 가진 못 했습니다..  
2) 재수 시절,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결정할 때 ‘사랑한다 LG’보다 ‘서울의 아리아’가 더 좋아서 고려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None

**32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전주현 20 남성 010-3391-7963 미필  
  
**2. 학교**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부 1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삼성 라이온즈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전주현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송도학사에서 생활하는 중입니다. 주로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을 취미로 삼고 있으며 어렸을 때부터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해왔습니다.  
  
**5. 지원 동기**코로나 바이러스와 입시가 겹치면서 최근 3년 동안 야구장에 방문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번 시즌에는 거진 5년 동안의 암흑기를 떨쳐내고 다시 상위권 팀으로 도약한 삼성을 코로나&수능 덕에 집에서만 응원할 수 밖에 없어서 더욱 아쉬움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는 동아리원들과 함께 야구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흥미가 생겨 이렇게 지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팀은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서점에서 하루 종일 프로야구 스카우팅 리포트를 쳐다보며 삼성 선수들의 스탯을 줄줄 외우고 다녔을 정도로 푹 빠져있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아니 좋아했던 선수들은 윤성환, 안지만, 박한이, 오승환 선수인데.. 네 선수 모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팬심이 크게 식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구자욱 선수, 원태인 선수, 그리고 왕조 시절의 추억 때문에 김상수 선수를 가장 열렬히 응원하는 중입니다. 김상수 선수가 올해는 제발 반등했으면 좋겠네요.   
팬심이 얼마나 깊냐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서 짧게 답을 해보자면, 작년에 한창 수능을 준비할 때도 학원에서 매 쉬는 시간마다 군대에 있는 형에게 삼성 경기 스코어를 문자로 물어보곤 했었습니다. 데이터가 막힌 폰이어서 점수를 알고 싶으면 그 방법밖에 없었던지라 형에게 매일같이 구박을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문자를 보냈던 기억이 남아있네요.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코로나가 어떻게 흘러갈 지는 모르겠지만, 직관뿐만 아니라 동아리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4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김수민 21 남성 010-2660-9823 미필  
  
**2. 학교**서울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삼성 라이온즈  
  
**4. 간단한 자기소개**대구에서 어릴 적부터 살다가 대학 때문에 상경하게 된 삼성라이온즈 골수팬 김수민입니다. 야구를 처음 좋아하게 된 계기는 아빠도 역시 삼성 팬이셔서 자연스럽게 야구를 접하다가 야구의 매력에 빠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고 있구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으로 재학 중입니다. 낯을 조금 가리긴 하지만 금방 친해지고 친해지면 활발하고 재밌는 성격입니다! 취미는 축구나 야구 경기 시청입니다. 최애 선수는 삼성의 돌부처 마무리 오승환 선수랑 차기 국대 에이스 원태인 선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삼성라이온즈 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 관해서도 지식이 빠삭합니다.  
  
**5. 지원 동기**서울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친구가 많이 없는데 line-up 활동을 통해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향 친구들도 다 삼성 팬이라 타 팀 팬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동아리를 통해 타 팀 팬들과도 친해지고 의견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 저는 아직 과거 삼성 홈구장인 대구시민구장이랑 현재 삼성 홈구장 라이온즈파크 말곤 직관한 적이 없었는데 야구팬으로서 전국 여러 구장의 직관도 꼭 가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저는 제가 초3때인 2011년 삼성 통합 우승 시절부터 현재 2022년까지 한 시즌도 빠짐없이 삼성 팬이었고 야구를 봤습니다. 한 주 6경기 중 꼭 1경기 이상은 풀경기 시청, 나머지 경기는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하이라이트를 꼭 봐왔습니다.(심지어 고3때까지도요) 타 팀 경기도 모든 경기는 아니지만 점수 차이가 아슬아슬하거나 삼성이랑 순위 경쟁 하던 팀은 풀경기나 하이라이트 꼭 챙겨봤습니다. 선수들 성적 차트 보는 것도 좋아하구요. 시즌 중에는 삼성 선수들과 몇몇 좋아하는 타팀 선수들 성적은 거의 외우고 있을 정도로 야구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선수는 자기소개에서 말했다시피 오승환 선수와 원태인 선수 좋아하구요. 지금은 작년 신인 선수인 이승현 선수와 올해 1차 지명 된 신인 내야수 이재현 선수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타팀 팬 선수들 중에서는 홍창기 선수랑 이정후 선수 좋아합니다. 그리고심심할 때 과거 야구 영상 찾아보기도 하고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야구 전설들 설명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봐서 과거 프로야구 선수들까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전국 여러 타 구장 직관을 다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 승부예측해서 적게 맞춘 사람이 밥 사기나 다같이 경기 시작 전과 후 경기 분석하기, 야구 칼럼 작성 같은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35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오근호 23 남성 010-4923-8365 군필  
  
**2. 학교**중앙대학교 생명과학과 재학  
  
**3. 응원하는 팀**KIA 타이거즈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세요 갓 전역 후 복학한 19학번 오근호라고 합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다가 대학은 서울로 오게 돼서 동작구 내에 있는 기숙사 생활하는 중입니다  
성격은 상당히 내성적이고 조용한데, 야구 좋아하는 친구랑은 시즌 중에 종종 대화하곤 합니다  
야구 말고도 스포츠 전반적으로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5. 지원 동기**복학하고 같이 야구 볼만한 주변사람이 거의 없어서 직관은 어떻게 하나 고민중이었는데, 에타를 둘러보다가 모집글이 보여서 바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광주광역시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기아를 좋아합니다  
2009년 우승하는 모습 보면서 좋아하게 됐는데요, 물론 포스트시즌을 갔던 기억이 손에 꼽지만 꼴찌를 하더라도 경기 기록은 매일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물론 보통은 보고 화가 났지만요)  
좋아하는 선수는 특별히 없긴 한데, 팀 내에서 꼽자면 기아 예비 영결인 양현종선수나 타이거즈 마스코트 김선빈선수를 조금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아 경기에 대해 인상깊은 기억도 많은데요, 09년도 한국시리즈 결승 만루홈런부터 시작해서 11년도(?) 이용규선수 기아시절에 한 타석 최다 투구수도 보는 맛이 있었고, 10년도 16연패를 했던 기록도 인상깊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건 역시 17년도 한국시리즈인 것 같네요!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당당하게 야구보러간다고 쌤한테 말하고 야자 째서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양현종선수 완봉승 거두는 장면을 봤습니다  
5차전때는 집에 친구들 데리고 와서 치킨 시켜놓고 tv로 봤던 기억도 있구요!  
물론 그렇다고 기아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 (기아가 포시에 간 기억이 거의 없어서 특히 포시에는)다른 팀들도 응원하기는 합니다!  
작년에는 kt 첫 우승 보면서 기뻐했던 기억도 있네요ㅎㅎ  
신세계도 한때는 라이벌관계였어서 꽤나 즐겁게 보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도 빼놓을 순 없는데요, 08년도 베이징올림픽부터 작년 도쿄올림픽까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프리미어 12 등등 볼 수 있는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입대하기 전 19년 말에는 프리미어12를 보겠다고 고척돔을 가서 호주와의 경기 보면서 응원했던 기억도 있네요!  
그리고 메이저리그도 조금은 챙겨봅니다! 코리안리거나 미국 포스트시즌도 종종 보긴 했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야구 직관을 물론 제일 하고 싶습니다!  
2년동안 군부대 안에서 있으면서 코로나라는 악재까지 겹쳐서 직관을 못 간 게 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구 직관을 갈 수 있을 때 가보고 싶구요, 야구팬분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37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이수빈 21 여성 010-7913-7424 해당사항 없음  
  
**2. 학교**서울여자대학교 1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LG 트윈스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살고 있는 이수빈입니다. 전 산업디자인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그림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전 체력도 약하고 잠도 많지만 쾌활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며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저기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파워E랍니다 ㅎㅎ  
  
**5. 지원 동기**앞서 언급했다 싶이 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참여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야구 뿐만아니라 다른 친목 활동까지 병행하는 라인업의 활동들을 보고 가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전 중학교 2학년 야구를 처음 보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본 경기가 엘지트윈스였다는 이유만으로 절 지금까지 엘지팬으로 남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중학교때는 조금씩만 보러 다니고 고등학교때는 야구보단 학교생활에 시간을 쏟았고, 제가 재수할 때에 야구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거든요. 그 경기 하나하나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수험생활 속 행복이 되어주었습니다. 사실 전 프로야구의 속까지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 누가 트레이드되고 올해 누가 몇억을 받는 등 야구 소식 중에서도 핫한 소식들만 알고 있고, 아직은 LGTWINS의 선수들밖에 관심을 두지 않아 타팀의 선수들 또한 잘 모릅니다. 전 그저 그 경기 자체를 좋아했고 보고 즐기는데에 그쳤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동아리를 함으로써 다른 야구 팬들을 직접 만나고 그 팀엔 어떤 선수가 있고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아직은 인스타에 나와있는 것 인스타에 보여지는 것 만으로도 너무 재밌어 보여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보이지만, 다같이 야구보러 홈,원정 가는 것은 물론이고 같이 회식도 하고 한강도 가며 놀고싶구, 같이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한 해 보내고 싶습니다 !

**44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김민성 25 남성 010-6677-5706 군필  
  
**2. 학교**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4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롯데 자이언츠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흑석동 기숙사에 살고있는 김민성이라고합니다. 야구를 본지는 올해가 15년차고 롯데자이언츠의 열성적인 팬입니다. 제 성격의 장점으로는 남을 배려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있다는겁니다. 혹시나 동아리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시 중재하는역할을 맡을수 있습니다!  
  
**5. 지원 동기**예전에는 1년에 3-4회씩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야구 직관을 항상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와 코로나19 유행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최근 몇년간은 직관을 가지못하였습니다. 직관에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있었는데 야구직관동아리에들어가면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지신 분들과 함께 좋은추억들도만들고 야구지식들도 공유하면서 일상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을 같이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게되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저는 2008년부터 야구를 보기 시작하였고 15년째 롯데자이언츠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출신이다보니 어릴때부터 아버지와 친척들이 롯데야구를 보는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로이스터 감독의 부임과함께 롯데야구가 상승세를 타게되었고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까지 겹치게 되어 본격적으로 야구에 입문하게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단 한시즌도 빼먹지않고 꾸준히 야구를 봐왔고 거의 모든 경기를 라이브로 중계를 보는 등 야구는 제삶의 전부입니다. 고3때나 대학 시험기간등에도 왠만하면 야구중계를 빼먹지않았는데 피치못할사정으로 야구를 보지못했을때는 하이라이트라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였고 코로나 이전에 유럽여행을 갔을때도 시간을 맞추어 야구중계를 보곤 하였습니다. 제가 롯데자이언츠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손아섭선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nc다이노스로 이적을 하긴했지만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피나는노력을하였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거기에 안주하지않고 더욱더 노력을 해서 정상을 꾸준히 유지한 선수입니다. 야구로써뿐만아니라 제 삶에 있어서도 멘토같은 선수입니다. 또한 이대호선수가 떠난 후부터 찾아온 롯데의 암흑기때 홀로 고군분투하며 아섭자이언츠라는 별명을 지었졌을만큼 버텨준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야구 직관 뿐만이아니라 스크린야구나 배팅장 등을 이용하여 실제로 야구를 한다든지 한강소풍, 방탈출, 보드게임카페 등 결속력을 도모할수 있는 활동들을 하면 좋을것같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직관이 제한됬을때 방역수칙을 어기지않는 선에서 파티룸을 예약하여 다함께 야구중계를 라이브로 시청하는것도 좋다고생각합니다.

**45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김민규 20 남성 010-2048-6049 미필  
  
**2. 학교**가톨릭대학교 국제법정경계열 1학년 (22학번, 경제학과 희망)  
  
**3. 응원하는 팀**키움 히어로즈  
  
**4. 간단한 자기소개**경기도 시흥시 거주중이고, 축구 야구 등 웬만한 스포츠는 보는것, 하는것 모두 좋아하는 20살 남자입니다! 낯을 살짝 가리지만 친해지면 누구보다 활발하고 말 많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ㅎㅎㅎ  
  
**5. 지원 동기**고등학교때는 직관을 혼자서, 혹은 친한 친구들끼리 소규모로 가까운 문학이나 고척, 가끔 잠실까지만 다녔는데, 이제 20살이 되며 여러 팀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지방까지도 원정응원을 다녀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수능 2주 전.. 2021 KBO 와일드카드 1차전 키움 VS 두산 경기날 직관하고 왔습니다. 백신패스로 제한이 풀려 꽉찬 응원석에서, 히어로즈를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있는데.. 그 날 규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육성응원을 하는데 그만큼 벅차고 야구가 재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가도 이렇게 즐거운데 여러명과 같이 다닌다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이면 다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에 떠난 박병호 선수나, 팀의 코어 이정후-김혜성, 잠시 공익을 간 조상우 선수, 현역에 있는 주효상, 상무에 있는 임병욱까지.. 다 좋아합니다! 겨울동안 야구 못 보다가 저번주부터 연습경기, 시범경기를 풀타임으로 챙겨보니 이만큼 야구가 재밌을수가 없더라구요. 올해 히어로즈 멤버십까지 구매해서 열심히 직관다닐 예정입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사직, 창원, 대구, 대전, 광주 등 혼자서 가기 애매한 지방 직관도 다녀보고 싶습니다!

**46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정의진 20 남성 010-2820-5600 미필  
  
**2. 학교**경기대학교 경영학부 1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삼성 라이온즈  
  
**4. 간단한 자기소개**거주 지역은 평일엔 수원에서 기숙사 생활하고 주말엔 일산에서 삽니다. 성격은 친해지면 말도 많아지고 장난도 많이 치는 성격이고, 텐션이 높은 분위기를 좋아해서 텐션 높은 친구들과 있으면 덩달아 틴선이 높아지는 편입니다. 취미는 유튜브 영상 시청입니다.  
  
**5. 지원 동기**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야구에 미쳐 살지만, 주변에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야구 얘기도 못하고, 코로나까지 겹쳐서 직관도 못가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선배님들과 친해져서 직관도 가고, 야구 얘기도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저는 초등학생때부터 삼성 라이온즈의 팬이 됐습니다. 팬이 된 계기는 제 고향이 대구이기도 하고,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태권도 관장님의 영향으로 삼성을 응원하게 됐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강민호 선수로, 팀에 이적해 왔음에도 팀에 잘 녹아들고, 특유의 장난끼 넘치는 성격이 재밌어서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가 삼성을 얼마나 좋아하는 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삼성이라는 팀에 미쳐 사는 사람은 없을거라고 자신합니다. 어린시절부터 꾸준히 부모님께서 너가 야구에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공부를 햿으면 전교 1등을 하실거라고 하셨고, 고3 수험생활 시절에도 독서실에서 야구를 챙겨보는걸 보고 제 친구들이 고3 맞냐고 할 정도로 야구에 미쳐 살았습니다. 저희 팀 선수들의 등번호와 연봉은 기본적으로 달달 외우고 다니며, 선수들의 응원가와 팀 응원가는 전부 알고 있으며 혼자 있을때 심심하면 부를 정도입니다. 다른 팀들의 응원가도 좋은 응원가들은 외우고 다닙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직관가서 응원가를 부르면서 신나게 놀고 싶습니다!

**49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박경빈 22 여성 010-9046-9804 해당사항 없음  
  
**2. 학교**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2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삼성 라이온즈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박경빈이라고 합니다. 저의 성격은 활발하고 긍정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낯은 가리지 않는 편입니다. 야구를 보는 게 취미이고 야구와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사실 야구와 관련된 책을 읽은 것은 작년부터인데, 그전까지 야구에 대해 잘 아는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으니 구체적인 규칙들도 배울 수 있었고 야구를 더욱더 완전히 이해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요즘은 세이버 메트릭스를 많이 언급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좋았습니다.  
  
**5. 지원 동기**삼성라이온즈 연고지는 대구인데, 대구에 연고가 없어 라이온즈 파크를 자주 방문하지 못했었습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해서 상대적으로 주변에는 두산과 LG팬들이고 삼성 팬 친구들이 드물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Line-up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삼성라이온즈 팬분들을 사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동기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눈치 보지 않고 야구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변에 야구를 보는 친구들이 잘 없어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다른 구단 팬들과도 이번 시즌이나 기대되는 신인 등 많은 야구 이야기를 나누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대구에 연고도 없고 부모님께서도 야구를 보지 않는데 서울에 살면서 어떤 이유로 삼성 팬이 되었느냐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제가 삼성 팬이 된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3년에 삼성과 두산의 한국시리즈 경기를 보고 팬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살다 보니 경기를 보던 주변 친구들이 모두 두산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삼성이 지고 있는데 다들 두산만 응원하고 있어 안된 마음에 삼성을 응원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해 가을 이후 야구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바탕으로 진정한 삼성 팬이 되었고 매일 야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선수는 오승환 선수였습니다. 한국시리즈에서 희생하여 오랜 시간 마운드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고의 마무리 투수이지만(ㅎㅎ) 당시에는 정말 끝내주게 최고인 선수였기에 안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는 자기관리로 마운드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존경심이 듭니다. 예전처럼 뛰어난 구위를 바탕으로 선수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종을 연마하여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당. 자신의 잘했던 시절의 모습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를 인정하고 이를 대응하는 모습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야수 중에는 박해민 선수를 좋아했습니다. 비록 올 시즌부터 다른 팀 유니폼을 입게 되었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프로 지명에 실패하고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대학서 4할 타율이었지만 또다시 프로 지명이 실패하고 야구를 그만두려고 하였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삼성의 신고 선수로 입단하게 됩니다. 신고선수로 입단하였지만 주전 외야수가 되었고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국가대표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병역 비리라고 욕도 먹으며 논란이 많았으나 작년 도쿄 올림픽 때는 자신이 왜 국가대표인지 당당하게 증명해 내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A 대박까지 터뜨리며 김현수 선수 다음으로 가장 성공한 신고선수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해민 선수가 걸어온 길을 지켜보며 무슨 일이 있든 포기하지 말고 내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한 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인생을 야구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점들이 야구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원태인 선수를 좋아하는데요, 작년 시즌 토종 선수 다승 공동 1위에 등극하는 등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 우뚝 섰다고 생각하는데 멋있기도 하고 자부심도 느낍니다. 더불어 저와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극도 많이 됩니다. 저 또한 제가 속해있는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선수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제가 응원하는 선수의 실력이 일취월장 되었을 때 마치 제가 이루는 성과처럼 즐거운 것이 야구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저를 뽑아주세요!! ㅎㅎㅎ 열심히 즐겁게 활동할 자신 있습니다!

**54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이선우 21 남성 010-6465-3878 미필  
  
**2. 학교**건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 1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KIA 타이거즈  
  
**4. 간단한 자기소개**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새내기입니다. 성격은 무척 밝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먼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모임에 거의 출석하는 편이며, 약속은 거의 지킵니다.  
  
취미는 우선적으론 롯데 경기 시청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시애틀 매리너스의 경기를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해외축구 시청도 즐기는 편이며,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몇몇 게임도 즐겨 합니다.  
  
**5. 지원 동기**저는 부산 태생으로, 롯데 팬이신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경기도로 이사한 이후로는 아쉽게도 같은 롯데 팬 친구들을 많이 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Line-UP 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같은 롯데 팬들과 롯데 경기를 직관하고 희로애락을 나누며 좋은 만남을 가질 기회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모태 팬인 만큼, 저는 롯데를 정말 좋아합니다. 종종 답답한 경기력에 화도 내곤 하지만, 다른 팀에는 도저히 정이 가지 않아 지금까지도 롯데만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작 아버지께서는 만류하곤 하셨지만, 저는 롯데 팬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김진욱 선수를 좋아합니다. 현대 세이버에서 좌완의 가치가 고전적 야구관에서만큼은 아니라곤 해도, 좌완은 견제 용이 및 타자에게 낯선 접근 등 많은 가치를 지닌 투수가 될 수 있는 이점입니다. 하지만 롯데에는 좌완 선수가 얼마 없었습니다. 제가 야구를 본 이래 가장 훌륭한 토종 좌완이었던 장원준 선수는 두산으로 떠났고, 1 2선발을 오가며 롯데 좌완의 상징과도 같이 군림하던 브룩스 레일리는 메이저리그로 떠났습니다. 저는 김진욱 선수가 그 좌완 계보를 이을 훌륭한 선수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올해는 이대호 선수의 마지막 시즌입니다. 그럼에도 팀에는 많은 미지수가 존재합니다. 손아섭 선수가 팀을 떠났고, 리그 내에서 LG의 오지환과 함께 최고의 수비수로 손꼽히던 딕슨 마차도 또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새로운 우완 용병 스파크맨 또한 근 2년을 부상으로 고전하던 선수이며, 롯데로 이적해온 후에도 부상으로 개막전 출전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대호 선수 또한 올 시즌 이러한 롯데의 행보에 인터뷰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올 시즌 좋은 성과를 내야만 합니다. 이대호 선수의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선수들 또한 같은 생각으로 보이는 인터뷰를 해 주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물을 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뒤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롯데 자이언츠, Win The Time!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같은 롯데 팬들과 함께 롯데 경기를 직관하러 가고 싶습니다. 제 오래된 꿈입니다!

**56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조영익 25 남성 010-4042-2564 군필  
  
**2. 학교**중앙대 기계과 재학  
  
**3. 응원하는 팀**KIA 타이거즈  
  
**4. 간단한 자기소개**저는 서울에 거주합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닌데 활동같은건 빠짐없이 다 참가합니다! 취미는 스포츠 관람이에요. 야구뿐만아니라 농구 축구 심지어 롤도 챙겨봐요. 제대하고 1년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이제 밖에서 활동 같은 것 좀 열심히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5. 지원 동기**야구 직관을 가면 항상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직관 갔다가 20대4로 진적이 있었는데 졌음에도 같이 야구를 보고 응원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남아요. 직관 가서승패와 상관없이 노래 부르고 먹는 것이 즐겁습니다. 야구장에서 만큼은 내려놓고 스트레스 다 풀고 행복한 기억 쌓고 싶어요. 라인업에 합격해서 이런 기억 많이 쌓고 싶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야구를 너무 너무 좋아해서 재수때 수능을 3주 앞두고도 기아의 우승을 보기위해서 몰래 직관을 갔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원래 김주찬, 윤석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떠나셔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은 최형우 선수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유망주 선수들이 잘하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2군 경기도 보고 2군 선수 기록도 찾아 보는편입니다. 열정을 글로 표현 못하겠지만 동나이대에 저보다 야구에 오랜 시간 쏟은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그냥 딱 직관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편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65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오정아 22 여성 010-9376-3971 해당사항 없음  
  
**2. 학교**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3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두산 베어스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3학년 산림조경학과 오정아입니다. 현재 3-1학기에 재학중에 있으며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MBTI는 ISFJ입니다. I라고 해서 조용하고 소심하다? 아닙니다. 오랜 기간 알고지낸 고향친구도 제게 E냐고 묻습니다. 일단 저는 집순이가 적성에 맞지 않아 약속을 잡고 친구를 만나고 행복해 하고 그 속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약속이 없는 날이면 혼자서라도 나가봅니다. 그렇게 나가고 활동을 하게 되면서 하루를 알차게 살았다는 뿌듯함으로 기분 좋게 돌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을 만날 일이 생기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가볍게 MBTI를 물어보곤 합니다. 사실 제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상황을 깨고 알아가 보자는 생각이 들며 먼저 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내가 E로 변한 것 같다는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학기, 시작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먼저 말을 걸어주길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면수업, 학생회 활동, 캠퍼스투어 진행 , 후배와의 만남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제 안에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으며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한 저와 야구를 좋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팀, 다른 팀 사람들을 만나면 더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야구와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말로 갓생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습니다. 30분 단위로 시간을 나누어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6시,7시 기상을 통해 하루를 알차고 뿌듯하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며 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해냈다는 뿌듯함이 저를 많이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새벽수영을 하고 나만의 하루 운동 기준을 정해 활동하며 매일 채워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5. 지원 동기**제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응원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그 안에서 성장하고 싶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단에 소속되어 사회의 작은 부분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배워가고 싶습니다. 야구라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같은 포인트를 공유하며 기억에 남는 대학생활으로 남기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처음 야구를 좋아하게 된 시작은 2018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국가대표 훈련을 하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귀엽게 느껴지는 선수를 보고 검색하고 찾아보면서 야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 선수에서 시작해 어느새 저는 팀 두산을 좋아하고 야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격상 흥미를 금방 잃게 되고 질려하는데 야구에 대한 흥미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계속 좋아하는 제 모습을 보며 진짜 이건 답이 없고 평생 좋아할 만한 취미와 흥미가 생겼다는 것에 뿌듯했습니다.  
  
 서울이 아니고 야구장이 없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야구장과의 접근성도 좋지 않았고 가려면 마음먹고 가야 하는 지역이었기에 그런 점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입을 준비하며 야구장을 가기란 쉽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시험이 끝난 날 바로 버스를 타고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고 이모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경기까지 보고 온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린이날 잠실더비 경기를 보며 제가 상상했던 딱 그 야구장을 경험했습니다. 매진된 좌석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공격마다 일어나 응원하는 사람들 속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장소에 있다는 것이 매우 소름 돋았습니다. 야구장하면 생각나는 치킨도 먹고 승리까지 하며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부를 하며 막연히 하기 싫다가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서울의 대학을 가 이 기분을 더 맘껏 누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서울의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잠실야구장이 보이는 방을 배정받아 야구에 대한 제 마음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두산베어스 대학생 마케터 지원, 사인회 참석을 위해 한겨울 바닥에서의 대기도 다 좋은 기억이 되었습니다. 처음만난 동기와도 야구를 좋아한다는 공통점 하나로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 2021년 와일드카드,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까지 모든 경기 직관을 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동기부여를 받았고 동기와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 뿌듯했습니다.   
  
  
모태두린이, 부모님의 영향은 없었지만 지금의 저는 그 누구보다 두산을 사랑하고 두산베어스에게 진심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추억을 쌓고 활동하며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보내고 싶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말이 딱 저에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늦게 빠진 야구에 더 열중하고 그 가운데 이 동아리에 대한 지원은 더욱 제가 야구에 대한 열정을 지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스크린야구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69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김재원 26 남성 010-4827-2601 군필  
  
**2. 학교**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3학년 재학중입니다  
  
**3. 응원하는 팀**KIA 타이거즈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재원입니다 저는 isfp로서 평화주의자입니다 여러사람들과 두루두루 평화롭게 지낼 자신이 있습니다. 웃음이 많은 편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둥글둥글한 성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취미는 영화보기 야구보기 입니다. 하던 일을 마치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5. 지원 동기**우선 야구를 엄청 사랑합니다. 야구가 지면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덕에 기아타이거즈 경기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2017년 기아 우승했을때부터인데 이때부터 기아 야구에 푹빠져살게 되었습니다. 이기면 그날 저녁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허나 좋아하는 마음에 비해 직관을 많이 가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생활 여러 친구들과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저는 17년 대학교 수업을 째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내려가 한국시리즈 2차전을 직관한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수업을 빠졌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기억을 떠올리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 분위기, 열정이 너무 그립습니다. 저는 최형우 선수를 좋아합니다. 일단 너무 꾸준한 선수이기도 하고 중요할때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주기 때문입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직관도 많이가도 좋지만 서로서로 많이 만나 야구 얘기도 많이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72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한웅규 24 남성 010-2743-8173 군필  
  
**2. 학교**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3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KIA 타이거즈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원에 살고 있고, 올해 중순에 서울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사교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선천적 e입니다 ㅎㅎ  
  
취미는 야구시청, 쇼핑입니다!  
위 항목에 체크했던 것처럼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고 있으며, 아무리 바빠도 이긴 경기 하이라이트 만큼은 꼭 챙겨볼 만큼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  
  
만약 동아리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행사, 직관에 참여하겠습니다!  
  
**5. 지원 동기**저는 야구, 특히 기아를 정말 좋아해서 단순히 야구를 보기위해 srt를 타고 광주까지 가곤 했습니다.   
주변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저처럼 열정적으로 야구를 챙겨보고, 직관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야구에 진심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동아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저만큼 야구에 진심인 사람을 살면서 못봤습니다.  
어렸을 때 취미는 야구선수 기록을 외우는 것이었고, 학교가 끝나면 항상 과자를 먹으며 야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야구를 보고 있으며, 직관도 종종 가곤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긴 경기 하이라이트는 꼭 챙겨보고, FA 찌라시 하나에 하루종일 기분 좋거나 시무룩할 정도로 평소에도 관심이 매우 많고 야구에 진심입니다 :)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안치홍..이었으나, FA를 통해 롯데로 이적하였기 때문에 (덕분에 유니폼 2개는 당근행..) 지금은 이의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시즌 개막에 앞서 신인 김도영 선수에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주변에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만큼 야구에 진심인 친구는 아직 사귀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종종 '나만큼 야구에 진심인 친구들을 사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에브리타임을 통해 동아리 모집공고를 보고, 인스타 활동 사진들을 보면서, 꼭 지원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만약 라인업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행사, 직관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 일정을 2개 이상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화,목요일 오후 5시 반부터 학원 알바가 있어서 수요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77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김한아 21 여성 010-4537-2899 해당사항 없음  
  
**2. 학교**가톨릭대학교 어문계열 1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키움 히어로즈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어문계열에 재학 중이며,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21살 김한아입니다. 제 강점은 성실함과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1년간 매일 새벽 5시에 하루를 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든 한 번 좋아하는 것은 꾸준히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5. 지원 동기**초등학생 때부터 아빠를 따라 자연스레 온 가족이 모두 야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mvp 시상식도 방문해보고, 유니폼을 입고 야구장에서 응원단과 함께 열렬히 응원하기도 하며 야구의 매력에 흠뻑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이외에는 주변에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많이 없었습니다. 함께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대상이 적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아,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꼭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야구의 재미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교에서는 동아리 참여가 자유롭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 활동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정말로 좋아하고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Line-up'을 접하게 되었고, 야구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인 사람들이 취미활동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우선 저는 초등학생일 때부터 지금까지 키움 히어로즈(전 넥센 히어로즈)의 팬입니다. 처음에는 서건창 선수를 좋아했고, 서건창 선수가 200안타를 달성한 해에는 mvp 시상식을 위해 학교를 빠지고 시상식을 보러 간 적도 있을만큼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정후 선수를 가장 좋아하고 있고, 사이클링히트 기념 유니폼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넥센이 키움이 되고, 여러 번의 감독 교체와 고참선수 이탈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팀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꾸준히 응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홍보글에 명시된 것과 같이 꾸준히 함께 야구를 직관하러 가는 것, 야구에 대해 수다를 떠는 것만으로도 깊은 유대감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각종 야구 시상식, 행사나 지방 원정을 함께하는 것도 매우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87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안동현 22 남성 010-3177-3921 군필  
  
**2. 학교**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2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삼성 라이온즈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십니까.  
이번 line-up 6기 모집에 지원하게 된 안동현입니다. 본가는 울산이고, 현재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평소에 차분한 편이지만 한번 친해진 사람과는 이런저런 이야기 다 나누며 활발하게 잘 지내는 성격입니다. 중3 2학기에 전학 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원래부터 학교에 있었던 친구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주변 환경에 금방 적응하고 융화되는 타입입니다. 취미는 맛집탐방, 야구직관입니다. 먹는 걸 무척 좋아해서 어딜가든 뭐 먹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군 복무&코로나로 인해 최근에는 거의 가지 못했지만, (지금은 추억이 되어버린)대구시민운동장야구장&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포항야구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삼성 경기를 자주 직관하였고, 고3 시절에도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울산야구장을 찾아갈 정도로 야구 직관에 진심인 편입니다.  
  
**5. 지원 동기**저는 2010년부터 꾸준히 KBO를 봤던 야구팬입니다. 프로야구 원년부터 야구를 사랑하신 아버지 덕에 저 역시도 초등학생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삼성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울산은 전통적으로 야구보다 축구가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 야구에 관심사가 있는 사람이 주변에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대학교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야구에 관심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원래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서, 잠실이나 고척에서 삼성 원정 경기를 직관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었는데, 같이 볼 사람이 없어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위시 리스트 하나 이뤄보지도 못하고 군 복무를 하였고, 이번학기에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추세에서, ‘같이 야구 좀 볼 수 있는 모임없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 교내 홍보게시물을 찾아보던 중 Line-up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야구를 같이 보고 야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13년차 야구팬으로서 설레는 일이었고, 이에 더해 연합동아리 특성상 다양한 학교에서 오신학우분들을 뵐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용기를 가지고 이번 Line-up 6기 모집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저는 12년 전, 2010년부터 야구,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삶에서도 희노애락이 공존하듯이, 삼성팬으로 지내면서도 여러 감정이 교차하였던 것 같습니다. 2011~2014시즌 동안 KBO 역사상 최고의 왕조로 군림했을 땐 삼성팬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2015년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고 그 이후 팀이 암흑기를 겪을 때는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도 몰래 삼성경기를 문자중계로 볼 만큼 삼성에 대한 애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삼성의 성적이 어떤가를 떠나서 어린시절 아버지와 함께 야구장을 찾아 삼성을 응원한 추억이 너무나 소중하였고, 지금도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아쉽게 1위를 내주고 가을야구에서 부진하였지만, 암흑기를 끊고 재기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에서 희망을 가지고 늘 삼성라이온즈를 응원합니다.   
 제가 현재 삼성라이온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구자욱 선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암흑기 시절동안 팀 타선을 잘 이끌어주었고, 특히 그 어떤 선수보다도 야구를 잘 하고픈, 경기를 이기고자 하는 열정이 충만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NC다이노스와의 마지막 시리즈에서 3루타를 친 뒤의 포효, 절박함이 보이는 강한 홈 송구가 이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시즌 다년계약을 체결하여 삼성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확고히 자리 잡아 삼성팬 입장에서 더할나위 없이 좋은 선수입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무엇보다도 이 동아리의 본질인 야구직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한 활발하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야구를 함께 즐겼으면 하는 바입니다. 또한 야구직관 활동 외에도 많은 분과 정모, 번개를 통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친목도 나누면 더할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94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박영환 23 남성 010-6387-1394 미필  
  
**2. 학교**서강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휴학  
  
**3. 응원하는 팀**두산 베어스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박영환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영등포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학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그덕에 예전보다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번학기에는 보다 야구 직관을 많이 다닐 계획입니다.  
저는 밝고 활발한 성격입니다.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말도 많이 하고 분위기 메이커를 하는 역할을 주로 맡기 때문에 라인업 활동에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만큼 동아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때 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취미는 야구보기입니다. 평소에도 야구에 관심이 많았지만, 최근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있어서인지 더욱 관심이 많아졌고, 지방 원정까지 갈 정도로 야구 보러다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취미로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나 유튜브 보는 것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동아리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라인업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예전부터 함께 야구를 보러 다닐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꿈꿔왔던만큼, 라인업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큽니다.  
  
**5. 지원 동기**Line-up에 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어렸을때부터 야구를 좋아했지만, 막상 야구 직관을 많이 가지 못했던 이유중 하나는 주변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였습니다.  
야구 직관을 갈때도 주변에 야구를 같이 보러 갈 친구가 없어서 주로 혼자 보러가다보니,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야구를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야구를 자주 보러 다니고 싶은만큼, 야구에 관심이 있는 친구를 만나서 함께 야구를 보러 다기고 싶어서 라인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를 통해 저와 같은 두산을 비롯해 다른 팀 사람들도 만나고, 함께 야구도 보러 가고 싶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2009년 초등학교 친구의 추천으로 처음 야구를 보기 시작했고, 한국시리즈 끝내기 홈런을 치는 모습을 보며 야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위로 시작해 한국시리즈까지 올라가는 두산의 모습을 보면서 두산의 팬이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야구 직관을 많이 가지 못하고 중계로만 봤었지만, 대학생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야구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20번정도의 직관을 갈정도로 야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직관을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작년과 올해 모두 유료회원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제가 베어스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미라클'이라는 별명과 같이 기적적인 순간을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9년부터 작년까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미라클을 통해 베어스의 매력에 더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전력유출이 계속됨에도 새로운 선수가 등장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건우선수, 화려한 수비로 저를 짜릿하게 만들어주는 정수빈선수를 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록 약물전력이 있긴하지만 누구보다 노력하고 결정적인 한방을 날려주는 모습, 그리고 지난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며 김재환 선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두산베어스이기때문에, 아직 시작은 미비하지만 그동안 그래왔듯이 시즌 끝에서는 멋진 마무리를 할것이라 믿고 올해도 두산베어스를 열심히 응원하려합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올해 동아리에 지원하면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이 야구에 관심이 많은 친구를 만나서, 야구 직관을 많이 다니는 것입니다.   
라인업 활동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96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장문규 24 남성 010-2215-4532 군필  
  
**2. 학교**한양대학교erica 스마트융합공학과 1학년  
  
**3. 응원하는 팀**롯데 자이언츠  
  
**4. 간단한 자기소개**거주지역은 원래는 부산에서 사는데 지금은 경기도 군포시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사람 만나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앞에서 활동하는것을 좋아하며, 활발한 성격입니다. 취미는 야구할때는 야구 시청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축구도 좋아하며, 사람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며, 드라이브도 종종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합쳐서 간부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5. 지원 동기**제가 원래는 부산에서 대학교를 다니며 대부분 친구들이 다 부산에 있고, 그래서 사직구장을 한달에 5번정도 방문하며, 원정 경기도 자주 응원하러 가는 편 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편입학을 하여 경기도 수도권으로 와서 올해부터 야구를 다시 볼 생각 이었습니다. 그찰나에 라인업이라는 동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같이 야구를 보러가서 함께 응원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같이 야구에 뉴스 소식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고,  
여러사람들과 같이 응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저는 야구시즌이 되면 항상 롯데의 매경기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보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 뿐만 아닌 다른팀 경기도 같이 챙겨보며 하이라이트를 봐왔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했듯이 한달에 5번정도는 야구장을 방문하여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 하였고, 원정경기도 자주 가는 편 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야구에 대한 팬심이 엄청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야구 이야기만 하면 저를 찾을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롯데에서는 민병헌, 전준우, 김원중, 전롯데선수 앤디번즈 등 을 좋아합니다. 또한 다른팀에서는 엔씨의 박민우 두산의 정수빈 선수 등을 좋아합니다. 저는 전준우 민병헌선수의 유니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구 경기가 끝난후 선수들이 퇴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항상 기다려서 선수들에게 수고했다고 하고 저도 집으로 매일 갈 정도로 롯데 자이언츠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동아리에서 기회가 된다면 모든 활동을 참여 하여 동아리원들과 친목 도모를 하고 싶고, 얼른 같이 야구장에 방문하여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롯데 선수 뿐만아닌 다른 팀의 응원가도 거의 숙지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 경기 뿐만아닌 다른경기도 같이 참여하여 야구장을 가고 싶습니다.  
잘부탁 드립니다.

**100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김도훈 23 남성 010-7401-7420 미필  
  
**2. 학교**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건축사회환경공학부 3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SSG 랜더스  
  
**4. 간단한 자기소개**서울 강동구 사는 23살 김도훈입니다. 사람들을 웃기는 걸 좋아합니다. mbti는 ENTP 입니다. 친구들이 다 군대에 가서 만날 사람도 없고 시간도 널널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참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지원 동기**동아리를 찾아보다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아했던 야구 직관 동아리가 있길래, 강한 이끌림을 느끼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김광현 선수의 데뷔와 함께 저의 야구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데뷔했던 2007년 당시, SK와 두산은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 저의 친형은 두산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저는 형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두산과 라이벌인 SK의 팬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해에 SK가 한국시리즈를 우승하는 것을 보고, 잘됐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이 쿠바를 상대로 마지막에 병살타를 잡으면서 우승하고 선수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구가 정말 멋진 스포츠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 SK가 한국시리즈에서 기아와 맞붙었는데, 당시 한국시리즈 5,6,7차전이 잠실에서 열렸고 부모님을 졸라서 5차전을 보러 갔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퇴장당하고 SK는 패배했지만, 제 첫 직관의 경험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2010년에는 김광현 선수의 마무리와 함께 SK가 한국시리즈를 우승했고, 역시 김광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김광현 선수는 부상과 부진으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저도 게임에 빠져서 야구에 관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제가 중학교 2학년일 때 김광현 선수가 다시금 부활하는 것을 보고 저도 야구에 다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야구 보는 것에 미쳐 살았던 것 같고, 매일매일 네이버 스포츠에 있는 모든 야구 기사를 읽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캐치볼도 하고, 야구 얘기도 하고, 우리 팀이 더 잘하니 니네 팀이 더 잘하니 싸우기도 하고, 같이 야구도 많이 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도 늦게 끝나고 학원도 여러개 다니면서 야구 볼 시간이 없어져서 잠시 관심이 식었다가, 제가 고3이던 2018년에 역시나 김광현 선수의 마무리로 다시 SK가 한국시리즈를 우승하는 것을 보고 다시 가슴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SK 경기 하이라이트를 챙겨보며 응원했고,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도 등판 하이라이트 영상을 챙겨보면서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광현 선수가 KBO에 복귀했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야구장을 가서 한국시리즈 마운드에 서서 팀을 책임지는 에이스 김광현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야구를 같이 보러 갈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104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김형규 22 남성 010-2860-7059 미필  
  
**2. 학교**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1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KT 위즈  
  
**4. 간단한 자기소개**수원에 살고 성격은 다소 내성적이지만 친해지면 활발해집니다. 취미는 소소하게 노래부르는거(노래는 잘 못부름..)나 친구들이랑 야구 보는거 입니다.  
  
**5. 지원 동기**저랑 야구를 직관할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습니다..(군대,학교일정 등등) 저도 올해 직관을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더 즐겁기도 하고 저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저는 15년도 kt창단할때 직관도 다니고 좋아했었는데.. 팀이 1010109를 찍는 바람에 18년까지는 안보다가 19시즌 9연승때 다시 보기 시작해서 3년의 긴 수험생활을 하는동안에도 야구를 볼 정도로 팀 kt를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선수는 배제성,조용호,강백호,소형준 선수 등등이 있습니다. 야구를 처음 접한건 2010시즌(10살) 정도에 이대호선수가 그때 7관왕을 했을때 이대호선수한테 반해서 야구를 보기시작했던 기억이 나네요. 중간에 안보던 시절도 많았지만 야구를 본지 오래된 만큼 열정도 큽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수도권에 있는 경기장은 다 가보고 싶습니다. 약간 참여가 자유롭고 소소한 모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105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이정아 25 여성 010-5092-3318 해당사항 없음  
  
**2. 학교**성신여자대학교 화학과 4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SSG 랜더스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세요 18년 동안 SK 와이번스를 응원하다 SSG 랜더스를 응원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이정아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인천에 거주했고 현재는 인천 SSG 랜더스 필드인 문학야구장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평소 야구, 배구 등의 스포츠를 좋아하고 직관은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경기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Line-Up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직관을 즐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 지원 동기**작년 시즌 코로나로 인해 직관을 즐기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고 이번 시즌은 가장 좋아하는 선수인 김광현 선수가 돌아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많은 직관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을 Line-Up에서 취미가 같은 새로운 분들과 함께 하면 더욱 즐거운 시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같은 팀을 응원하는 가족, 친구들과 직관을 즐겼지만 대학 입학 후에는 두산 베어스의 팬인 동기들과 직관을 함께 하고 타구장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타 팬과 함께 하면서 더 직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팬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Line-Up 6기에 지원하였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5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주말마다 직관을 갈 정도로 어릴 적부터 야구장을 좋아했습니다. 그 후 매년 직관을 즐겼고 가을야구까지 빠지지 않고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SK 와이번스, SSG 랜더스 프런트는 직관 동안 팬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라운드 행사, 팬사인회, 인터뷰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직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꼭 중계를 보며 팀을 응원하였습니다. 오랜시간 팀을 응원한 만큼 팀에 대한 애정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김광현 선수입니다. 김광현 선수 경기가 있는 날에는 직관을 하였고 원정 경기가 있는 날에는 타구장에도 방문하였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에는 새벽에도 경기를 꼭 챙겨 보았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잘 부탁드립니다:)

**106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이후인 21 남성 010-3082-6388 미필  
  
**2. 학교**경희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1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한화 이글스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1학년에 재학중인 21살 이후인입니다!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가는 대전으로 한화팬입니다! 성격은 처음에는 낯을 가리는 편이지만, 친해진 이후에는 그런거 없이 편하게 잘 어울리며 지내는 편입니다 또 술은 잘 못하지만, 사람들과 같이 즐기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좋아하는 편이고 야구장에서도 앉아 있기보다는 항상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편입니다 !!!  
  
**5. 지원 동기**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전에 살면서 한화팬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때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시간 날때마다 야구장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타 지역의 기숙사 학교로 가게 되면서 고등학생 때부터는 직관을 거의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대학에 오면 꼭 직관을 자주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Line-up에서 활동을 통하여 부원들과 직관을 자주 다니면서 좋은 추억을 쌓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우선 제가 본격적으로 한화팬이 된 해는 2013년인데, 이 해는 한화가 개막 13연패를 기록했던 해지만 저는 이 13연패를 기록한 전경기를 TV로 보면서 한화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연패를 끊고 첫 승을 한 경기를 보고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는 부모님께 처음으로 야구장 직관을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 한화가 18연패라는 대기록을 작성할 당시에도 고3이었던 저는 한 경기도 빠짐없이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찾아보았고, 18연패를 끊던 순간에는 주말 자습시간에 교실 뒤쪽에서 친구들과 몰래 경기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서 선생님께 혼난 적도 있습니다. 올해로 한화팬이 된 지는 10년차인데, 지난 9년 동안 한화는 2018년에 3위 한번 이외에는 가을야구를 하지 못했고, 꼴찌 4번에 9위 1번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직관을 갔을 땐 진 날이 이긴 날보다 훨씬 많지만, 그래도 항상 직관은 재밌었던 기억 뿐입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스코어로 지고 있는 상황에도 열정적으로 응원하다가 올 자신 있습니다!!  
제가 한화에서 좋아하는 선수는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한명만 꼽자면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강재민 선수입니다! 이유는 우선 리그에서 손꼽히는 필승조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사이드암 투구폼으로 던지는 슬라이더로 타자들의 헛스윙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투수에서는 윤대경, 김민우, 김기중, 그리고 올해 신인인 문동주 선수 좋아하고 타자에서는 정은원, 노시환, 김태연, 최인호, 조한민 선수 좋아합니다! 사실 굳이 꼽자면 그런거고 경기에 잘 못 나오는 후보 선수까지 거의 다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은퇴했지만 송광민 선수가 예전에 너무 친절하게 싸인 해주신 적이 있어서 너무 팬이었고, 투구폼이 멋있는 윤규진 선수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None

**109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이재영 26 남성 010-6472-9271 군필  
  
**2. 학교**경기대 영문 4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두산 베어스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세요 야구를 사랑하는 26살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구요 동네 근처에 고척돔이 있어서 두산 야구경기가 있는 날이면 경기보러 자주 갑니다  
  
성격은 한번 친구를 사귀면 깊게 사귀는 스타일이라 친한 친구들에게는 정말 진심을 다하는 성격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하거나 행복해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성격이라서 사소한것이라도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예요  
  
취미는 야구 보는걸 좋아하고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해서 고등학교때 동아리로 야구를 했었구요 주로 1루수와 포수로 많이 뛰었습니다  
  
다른 취미는 요리 하는것도 좋아해서 요리 유튜브 보고 부족한 솜씨로 이것저것 자주 해보곤 합니다  
  
**5. 지원 동기**야구를 하는것도 좋아하고 보는것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졸업을 앞두고 있다보니 예전처럼 야구를 찾아보고 직접 직관하기 조금 어렵더라구요  
  
그런 와중에 올해부터는 정규시즌 100퍼센트 입장 가능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시간을 내서라도 야구를 보러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구요  
  
마침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많이 여유로워져서 졸업하기 전에 야구도 보고 새로운 분들도 만나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 야구 동아리를 알아봤는데 다른 곳들은 새로 생기거나 해서 동아리 운영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미숙할것 같기도 하고 노하우가 없을것 같아서 선뜻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구요  
  
그러던 중에 Line-Up을 알게 됐는데 Line-Up이 역사도 깊고 여러가지 활발하고 재밌는 활동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원하는 동아리 활동과 방향이 같아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야구를 처음 알게 된건 아무래도 베이징 올림픽때인데요, 제가 그 유명한 한번 뉴비는 영원한 뉴비라는 베이징 뉴비입니다!  
  
사실 베이징 올림픽때 야구를 처음 접하긴 했지만 어떤 팀을 정해놓고 좋아하진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좋아하기 시작한건 2010년 포스트시즌 때 두산의 매력을 처음으로 접하고 나서입니다  
  
20홈런 타자 5명을 앞세운 화려한 라인업과 히메네즈 김선우 원투펀치의 활약으로 강력한 타선을 앞세운 롯데를 리버스 스윕으로 꺾고 올라갔지만 삼성과의 혈투 속에서 끝내 한국시리즈 진출에 실패한 모습은 중학교 시절 어린 제 마음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화려한 타격과 탄탄한 선발진을 갖고 있어도, 실책 하나 때문에 경기가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8회를 이기고 있어도 마지막 9회를 뒤집으면 경기가 끝난다는 것, 실책이라는 변수마저도 야구라는것을 깨달았고 진정한 야구의 매력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산 야구에 입덕하게 됐고, 경기를 매일 찾아보게 된게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야구라는게 사실 144경기 페넌트레이스를 해 나가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스포츠이지만, 포스트시즌이라는 큰 경기에서는 정규 시즌의 전력이 큰 의미가 없는게 베어스라는 팀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딸려도, 올해는 어렵다라는 소리를 매해 들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결국엔 꾸역꾸역 한국시리즈에 올라가는 모습은 현생에 지쳐있는 제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팀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김현수 선수였는데, 김현수 선수가 이적하고 나서는 선수 하나를 좋아한다기보다는 팀 전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김현수라는 핵심 자원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똘똘 뭉쳐서 전력 공백을 메꾸는 모습에 솔직히 팬으로써 혀를 내두르기도 했고  
  
그 덕분에 야구라는 스포츠가 팀 퍼스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도 했고,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야구를 통해서도 많이 깨닫게 된거 같습니다  
  
제게 있어 야구는 즐거운 취미이자 고된 현생 속의 안식처 인것 같네요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즐겁고 재밌는 동아리 운영을 해주신다면 더 바랄게 없을거 같습니다!

**117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최예진 20 여성 010-2230-7313 해당사항 없음  
  
**2. 학교**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1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LG 트윈스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에 재학중인 엘지트윈스 팬 최예진입니다. 야구에 관한 동아리인만큼 야구와 관련지어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20년부터 야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입덕한 사람들을 스토브리그 뉴비라고 부르곤하죠? 네, 저도 드라마 스토브리그 덕분에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그렇게 야구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엘지팬이셔서 자연스럽게 저도 엘지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흥이 많은 편이라, 직관할 때 응원가도 부르고 율동도 따라하는걸 좋아합니다. 코로나때문에 구장에서 육성응원을 해본 적은 아직 한번도 없어서 아쉽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육성응원이 허용이 된다면 라인업의 부원들과 함께 여러 구장을 다니며 여러 팀의 응원가를 같이 부르고싶습니다.  
  
**5. 지원 동기**제가 야구에 입문을 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고, 작년에는 수험생 생활을 하다보니 주변에 같이 야구를 볼 친구도 없고, 직관을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이전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야구를 더 열심히 보러다니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혼자 직관을 가는 것 보다는 다른 야구팬들과 함께 보는 것이 더욱 즐겁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구 직관 동아리인 라인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다른 팀들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른 팀에도 좋아하는 선수들도 많고, 좋아하는 응원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 응원을 가보고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다른 팀 팬들과 친해지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동아리가 다양한 팀의 팬을 만날 수 있는 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저는 사실 야구를 좋아한지 오래 된 것도 아니라서 다른 지원자분들보다는 저의 열정이 약해보일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소소하지만 몇 자 적어보자면.. 최근에 엘지트윈스 인터파크샵에서 개막 기념 유니폼을 팬 공모전을 통해서 출시하는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에 직접 유니폼을 디자인해서 공모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KBO 대학생 기자단 혹은 대학생 마케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좋아하는 선수 딱 한 명을 꼽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들 야구선수가 되기까지, 주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겪어온 실패들, 여러 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서사가 만들어지고 팬들은 그런 야구만화같은 선수들 각각의 이야기들을 알기에 그 선수를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정말 아끼지만 지금 생각나는 선수는 임찬규 선수인데요, 어린 시절 엘지를 좋아했고 지명받기 전부터도 엘지에 가고싶다고 말하고 150km대의 공을 던지며 기대를 받았던 선수 그러나 팔꿈치 부상으로 본인의 주무기였던 속구를 잃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끊임없는 연구로 2020 시즌 정교한 피칭터널을 통해 커브의 위력을 높이며 10승 투수가 되며 이전처럼 빠르지 않은 속도에 대한 컴플렉스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2021시즌, 부진한 출발이였지만 다시 돌아온 임찬규는 집 나갔던 구속을 기적적으로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을 잃어버렸음에도 굴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리고 다시 되찾아오는 이 임찬규의 스토리가 인간승리같아 더욱 더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팀에대한 사랑, 재치로 팀의 분위기를 더 띄우고 팬을 위한 컨텐츠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까지 너무 고맙구요. 분명 팀이 좋아서 이 팀의 구성원들까지 좋아하게 된건데, 이렇게 팀원 한명 한명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응원하고 좋아하게되다보니 엘지라는 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코로나 상황이 혹시라도 더 심해진다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마구마구같은 게임을 통해서 원격으로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면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야구 동아리인만큼 다같이 스크린야구를 하는 것도 재미있을것 같고, 방학때는 지방에 있는 구장들로 직관을 가고싶습니다.

**127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권인회 24 남성 010-8763-4249 군필  
  
**2. 학교**경희대학교 응용물리학과 4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KIA 타이거즈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고 경희대학교 재학하고 있는 99년생 24살 권인회입니다! 저의 MBTI는 ESFJ, ENFJ이고 적응을 잘 하는 편이고 분위기를 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야구 직관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 대표로 야구동아리도 하고 있어서 자주 경기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룰을 잘 알고 있으며 야구에 대한 애정이 넘칩니다...! 한마디로 야구의 미친 사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5. 지원 동기**저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 야구는 꼭 봅니다. 직관이 아니더라도 라이브 시청, 라이브를 볼 수 없는 날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이라이트는 꼭 확인합니다. 하지만 제가 속한 야구동아리에서는 연습, 성적에 중심을 뒀기 때문에 프로야구에 대한 소통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KBO리그를 보는 만큼 소통할 창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직관을 갈 여력도 못냈고 같이 갈 사람도 없어서 자주 가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직관할 수 있는 소중한 분들을 만나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저는 2010년부터 야구를 관람했습니다. 2009년에 기아타이거즈가 우승했기 때문이 아니라, 2009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글러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야구를 취미로 즐기면서 프로야구를 접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릴 적 최애 선수는 이용규 선수였지만, 2014년의 아픔을 딛고 최애 선수는 정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팀에 있는 모든 선수를 좋아하며 현재 굳이 한명 꼽자면 최원준 선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야구를 직접 플레이하면서 우투좌타 외야수로 나서고 있는게 가장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들어 내적 친밀감이 생겼고 야구를 잘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팀 선수 보다도 KBO리그 통틀어서는 이정후 선수를 가장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처럼 저는 저희팀 선수 외에서 다른 팀 선수들의 등번호를 외울 정도로 야구를 전체적으로 다 보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을 좋아하는 소중한 분과 대화를 하여도 쉽사리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한국시리즈 5차전 우승을 직관하였을 때는 그만한 쾌감을 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직관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이제 4학년이기 때문에 대학활동의 마지막이고 올해가 아니면 앞으로 동아리 활동을 즐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구 관람에 관련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꼭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야구를 관람하면서 같이 관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야구를 보다가 실책을 하면 실시간으로 함께 안타까워하고 호수비를 하면 함께 놀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일정에 대해서는 부탁 드릴 게 있습니다... 수, 목 선약이 있어 부득이하게 화요일만 가능하며 그 이후도 가능하지만 6시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1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최준석 20 남성 010-9940-0947 미필  
  
**2. 학교**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1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두산 베어스  
  
**4. 간단한 자기소개**저는 고양시 일산에 사는 건국대학교 22학번 최준석입니다. 제 취미는 야구하기, 야구보기, 한강가서 치맥먹기, 보드게임카페 가기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라 성격이 외향적이고 밝은 편이고 취미도 친구나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5. 지원 동기**야구를 하는 것을 야구경기를 관람하는 것 못지않게 좋아하는데 동아리에서는 동아리원들과 경기를 보러 가면서, 경기를 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오랜 무관중 경기와 작년엔 수험생활로 한 번도 직관을 못 갔었는데 이제는 직관을 자주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브리타임에서 야구직관동아리를 찾아보았는데 line-up이 앞 기수의 기존 회원이 존재하는 전통이 있는 동아리라는 점, 건국대에만 한정된 동아리가 아닌 연합동아리라는 점에서 더 활발한 소통과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껴서 line-up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수능 날까지도 경기가 있었던 작년 한국시리즈를 어머니께서 못 보게 하시자 수능 전 날에도 독서실에 가서 3시간짜리 생중계를 몰래 봤을 정도로 저는 두산베어스 뿐 아니라 야구 자체에 대한 애정이 강합니다. 또한, 전 두산의 골수 팬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올스타전을 보러 부산까지 가거나 가을야구를 보러 대구까지 가는 등 야구를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고 그 과정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두산 팬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장난삼아 자기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할 때 저는 야구선수 최준석이 매번 상단에 나오는데 최준석 선수가 그 당시에는 또 두산 선수였었다 보니 저절로 애착이 가게 되었습니다. 넥센과의 2013 준플레이오프 5차전을 직관으로 관람했었는데 그 경기에서 긴 연장전 끝에 최준석이 쳤던 결정적인 홈런으로 느꼈던 쾌감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최준석 선수는 제 어린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중 하나가 되었고, 두산베어스는 언제나 제 학창시절과 함께 했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10개 구단 팬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올스타전을 line-up에서 동아리원들과 가보고 싶습니다. 야구 경기 관람 뿐만 아니라 같은 관심사가 있는 동아리원들과 정모처럼 만나는 자리를 활발하게 참여하고 싶습니다.

**134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김서현 22 여성 010-5425-1062 해당사항 없음  
  
**2. 학교**건국대학교 축산식품생명공학과 3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KIA 타이거즈  
  
**4. 간단한 자기소개**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김서현이라고 합니다! 저를 하나의 영어단어를 이용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바로 'Palette' 입니다. 팔레트는 흰 도화지에 색깔을 칠하기 전에, 여러 색들을 조합해보면서 어떤 색을 칠하는 것이 가장 좋을 지 고민하며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생각과 매력을 가진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소통하길 좋아하는 현재는 대학생 신분인 김서현입니다. 지금의 저는 저의 팔레트 안에서 앞으로 칠할 나만의 색깔을 찾아나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야구를 시작으로 스포츠 경기에 관심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농구에도 관심이 생겨 경기를 관람하러 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취미로는 영화관에서 영화보는 것도 좋아하구 서점가서 시간 보내는 것도 매우 사랑합니다♥  
  
**5. 지원 동기**야구를 좋아하게 된 고등학교 시절 때, 처음 문학구장으로 직관을 가서 느낀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이 에너지를 다른 사람이 같이 나누고 싶단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고를 나온 저의 주변에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ㅠ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 '꼭 야구 직관 동아리에 들어가야지!'라고 결심했는데,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가 심해져서 지원이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3학년인 올해를 놓친다면 이후에는 'Line-up' 동아리에 들어갈 기회를 영영 놓쳐버릴꺼 같아서 에타에서 보자마자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팀을 좋아하는 분들도 만나고 다른 팀끼리 같이 직관도 가고 함께 모여서 포스트 시즌도 보는 등의 활동을 같이 하는 상상만으로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구인들끼리 직관의 에너지도 나누고 야구 이야기로 꽃 피우면서 친목도 다지는 등 함께 활동해보고 싶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기아타이거즈를 좋아하여 직관을 한번 가보고 정식으로 야구에 빠지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입니다.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고등학교때 독서실에서 갤탭으로 야구 중계영상을 보는 시간은 저에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간혹 너무 집중한 나머지 조용한 독서실에서 종종 소리를 낼 뻔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의 직캠을 볼 때, 전 야구 중계를 보는 게 낙이었던 것 같습니다 ㅎㅎ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기아타이거즈의 김호령 선수입니다! 이유가 모르게 그저 처음엔 눈이 가서 좋아하다가 그의 수비 능력이 너무 좋았으며 비록 타격이 아쉽지만 이번 시즌 꼭 잘하길 응원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구 저희 엄마도 기아타이거즈를 좋아하셔서, 한번은 여름 휴가를 부산으로 갔다가 마지막날 야구 직관만을 위해 광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ㅎㅎ 곧 시즌 시작이 다가오니 관련 기사도 더 많이 올라오고 이번 시즌 연습 경기와 전력을 놓고 봤을 때, 기대가 많이 되는 시즌인 만큼 Line-up 동아리 부원이 되어 꼭 함께 활동하고 싶습니다!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수도권에 있는 팀이 아니면 홈구장을 혼자서는 쉽게 가기 어려운데, 부원들이랑 같이 지방 구장도 원정 직관 가보고 여행도 접목해서 직관도 보고 재밌는 추억도 많이 쌓고 오는 시간 가져보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지원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39번 지원자   
  
1.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군 복무**오유정 21 여성 010-6217-3064 해당사항 없음  
  
**2. 학교**건국대학교 영상영화학과 1학년 재학  
  
**3. 응원하는 팀**KT 위즈  
  
**4. 간단한 자기소개**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kt위즈 팬입니다. 인천에 살아서 가족들은 SSG랜더스를 응원하지만 저는 어쩌다보니 kt위즈 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t위즈와 함께 SSG랜더스도 좋아합니다.  
저는 다소 소심하고 붙임성이 없는 성격이라 다른 분들이 먼저 다가와 주시면 정말 좋아합니다.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들과는 정말 잘 친해지고 친해진 후부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고 행사나 활동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제가 소속된 과가 미대이다보니 그림 그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종 야구선수들을 모델로 크로키를 하기도 해요. 비록 부족하지만 동아리에서 이와 관련하여 저의 능력이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5. 지원 동기**평소 야구관람을 정말 좋아해서 야구 직관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야구장에 갈 친구들이 많지 않고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도중 Line-up 동아리의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새로운 야구팬 친구들을 사귀기에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2020년 말 즈음에 야구를 보다가 한 선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심우준 이었습니다. 타격이 약하고 수비를 잘하는 전형적인 유격수였는데, 특이하게도 그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나서 갑자기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석적이지는 않지만 강한 어깨와 빠른 다리를 활용한 화려한 수비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선수를 계속 주시하다보니 kt위즈라는 팀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원래 가족을 따라 SSG랜더스를 가볍게 응원하던 저는 어느새 kt위즈의 찐팬이 되어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재수를 하느라 입시에 얽매여 직관을 가기 힘들어도 야구중계는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니폼도 하나 둘 사들이기 시작하니 꽤나 많은 유니폼이 옷장에 쌓였습니다. 지금 집에 심우준 선수 마킹 유니폼만 세장 있을 정도입니다. 유니폼에는 선수들에게 직접 받은 싸인도 있습니다. kt위즈의 정규시즌 최종전인 문학 경기는 직접 직관을 가서 열띤 응원을 했고, 그 다음날 kt위즈가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지었던 타이브레이커 경기를 보며 선수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년에 kt위즈가 한국시리즈에 처음 진출했을 때는 수능 전날에도 야구를 봤습니다. 심지어 수능 당일에는 수능 시험을 마치고 바로 고척돔으로 달려가 비트배트를 흔들며 응원하고 결국 우승직관도 했습니다. 이렇게 야구를 열심히 봤으면서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ㅎㅎ  
  
**6. 동아리에서 원하는 점**동아리에서 함께 수원kt위즈파크로 직관을 가고 싶습니다. 작년엔 코로나와 입시가 겹쳐 위팍에 가보지 못했고 그것이 저한테 너무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위팍에 가서 즐겁게 응원을 해보고 싶습니다.